



국가중요농업유산

Korea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탐방여행상품



 NH여행

☎ 1899-0582

국가중요농업유산



※ 청산도, 제주, 금산, 하동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목 차

당일 코스

- 4 1500년 전통의 과학적 재배법
금산 인삼농업(제5호)
- 6 누에가 사는 친환경마을 전통농업을 이어오다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제8호)
- 8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제10호)

1박2일 코스

- 10 술향기 피어나고 살림살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곳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제7호)
- 12 1200년 한국 차문화의 종가
하동 전통 차농업(제6호)
전통농업과 주민협업문화를 간직한
구례 산수유 농업(제3호)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담양 대나무밭(제4호)
- 14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제11호)
온돌과 농업 관개수리기술의 만남
청산도 구들장 논(제1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발효차
장흥 발효차 청태진 농업시스템(제12호)
- 16 화산섬에서 피어난 농경문화의 꽃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제2호)
- 18 녹색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울릉 화산섬 밭 농업시스템(제9호)



국가중요농업유산

Korea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중앙의 문양은 땅, 물, 불, 바람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소와 상모 돌리는 모습을 상징화하여 농업유산의 문화적
특징을 표현
자연, 농업, 농촌을 의미하는 녹색과 땅을 표현하는 붉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람과 농업의 필수요소인 물을 표현

당일형 탐방상품

1500년 전통의 과학적 재배

금산 인삼농업



충청남도 남동쪽에 위치한 금산군은 해발고도 400~700m의 산지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산간 분지로, 1,500년의 인삼재배 역사와 전국 인삼의 70% 이상이 거래되는 인삼 재배, 가공,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인삼산업이 발달한 금산은 인삼을 중심작목으로 한 지역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금산인삼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농업문화를 형성하며 인삼산업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보전 가치

- 인삼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 역할, 독특한 재배법으로 차별화 (해가림 시설, 퇴비사용)
- 재배면적 극대화 (연작으로 인한 재배지 부족을 객토, 담수 등의 방법을 이용, 논 재배로 확장)
- 주민 생활양식 반영, 다양한 농경방식과 문화 발달 (개삼제, 금산농약, 금산인삼축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 몸이 길고 단단하며 흰색을 띠는 백삼을 곡삼 형태로 가공
- 사포닌 함량 등 인삼의 8개 대표 성분 대부분 최고치 수준

진약산 경사지의 비밀

금산에는 1,500년전 강처사라는 이가 산삼을 채취해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산삼 씨를 심어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인삼은 반음지성 다년생 식물로 배수가 양호한 토양과 서늘한 생육온도를 선호하는 작물입니다. 하절기 온도는 18~23℃가 최적인데 금산은 이러한 기후 조건에 잘 들어 맞습니다. 금산 인삼은 서쪽 및 남서쪽에 주봉이 있는 진약산, 대둔산의 북쪽 또는 동북쪽의 산기슭, 배수가 잘되는 경사지 토양에서 재배됩니다.



과학이 깃든 금산 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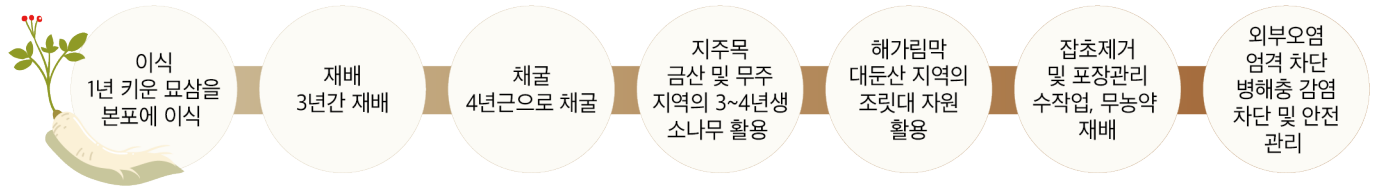
금산은 재배지 선정, 예정지 관리, 이식, 재배, 채굴, 백삼가공, 판매 등의 농업 작부체계를 알맞게 갖추고 있습니다. 예정지 관리는 2년간 시행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활엽수 잎과 줄기를 10ha 당 4.5t 넣고 30cm 깊이로 갈아주기를 15~20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토양유기물을 축적해 4년 이상 영양분을 보유토록 하고, 섬유질이 많은 청초를 투입해 토양 입단화(粒團化)를 조장합니다. 이로써 보수력과 통기성을 높여 뿌리생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토양 병해충은 햇빛으로 살균·살충합니다.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

금산 인삼은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재배하며 7월부터 채취를 시작해 10월 말까지 가공합니다. 이를 여름인삼이라 부르는데, 사포닌 함량이 많아 효능이 뛰어납니다. 금산 인삼 특유의 곡삼(曲蔘) 가공품도 인기입니다. 곡삼은 박피한 백삼의 몸체와 뿌리를 구부려 접어 말린 것으로 포장과 계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가의 고소득 작물이자 대표적 수출 상품인 금산 인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효능을 인정받은 한국의 대표건강식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금산 인삼의 전통적 재배 과정



충남 금산
인삼농업

금액 1인(성인, 소인 동일)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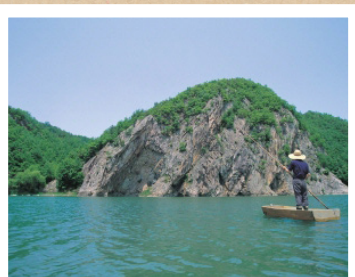
고파상



집결지	서울 서대문역 농협중앙회 또는 지정장소
출발인원	40명(최소 출발인원 30명)



인삼시장



적벽강 둘레길

일정 (당일)

- DAY 01
- 출발
 - 금산 수통 팜스테이 마을로 이동
 - 인삼꽃술 만들기 체험
 - 중식
 - 적벽강 둘레길 탐방
 - 인삼재배단지 탐방 및 현황청취
 - 인삼시장 자유견학
 - 도착

상기 일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일형 탐방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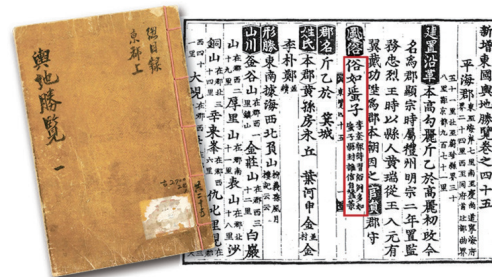
누에가 사는 친환경 마을
전통농업을 이어오다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유유마을은 뽕나무 재배부터 오디, 전통방식의 누에 사육까지 양잠농업 전반적인 과정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잠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와 생물의 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 등이 잘 유지되어온 지역입니다. 과학적 산물인 전통 잠실이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를 사육하는 농업시스템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농업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누에와 함께 살아온 마을



보전 가치

- 전통적인 방식의 양잠을 지속적으로 전승
- 주민들이 직접 만든 전통적 잠실이 다수 존재
- 주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라진 명주베짜기 재현
-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지력 증진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 뽕나무와 누에를 활용한 사계절 소득창출
- 마을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양잠농업에 참여

부안의 양잠농업은 고려시대 문장가인 이규보의 시(남행월일기, 1201년)와,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을 비롯한 옛 문헌인 조선 대동지지(1861년)에서 부안현의 토산품을 뽕으로 기록하고 있어 그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유유동 양잠농가는 마을전체농가의 80%, 뽕밭면적은 마을면적의 41%이며 유일하게 오디, 뽕, 누에를 복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뽕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유유마을은 변산반도 서쪽 산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로 산수가 수려해 예부터 선비들이 유유자적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마을 이름도 '유유(遊儒)'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에를 닮은 형국이라 하여 '잠두봉'이라 일컫는 야트막한 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유유동의 자연환경은 뽕나무서식과 누에가 살 수 있는 토질, 배수, 채광, 기후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약 없는 친환경농업

유유마을은 한 해 5,000만 마리의 누에를 기르고 38ha의 면적에서 뽕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농약에 매우 민감한 누에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어 오랜 옛날부터 꾸지뽕이 자생한 마을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유마을은 논이 없고 돌이 많은 밭이 대부분이라 주민들이 돌과 흙을 이용해 잠실을 만들었습니다. 두텁게 쌓은 외벽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위아래로 뚫은 환기창은 습도를 조절해 누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더하였습니다. 전통토석잠실을 통한 전통적 누에치기와 잠실구조의 특성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토석벽, 온도·습도조절을 위한 창구조(권창)와 하부 환기창(풍두)을 두었으며 사면(四面)에 창문을 조성하였습니다.

양잠농업을 활용한 6차산업

유유마을 양잠농업은 지역주민과 참뽕연구소, 전북 잠사곤충 시험장, 누에타운, 청소년 수련원등 양잠농업과 관련된 단체가 협력하여 오디, 누에와 관련된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행사인 잠령제와 참뽕 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마을전체의 안녕과 유유동 양잠농업의 안전과 풍원을 기원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와 전통적 명주 짜기 체험은 부안의 양잠농업 홍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양잠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데에 자부심을 갖고,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양잠농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그 날까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금액 1인(성인, 소인 동일)
35,000원~



집결지	서울 서대문역 농협중앙회 또는 지정장소
출발인원	40명(최소 출발인원 30명)



내소사 문화탐방



참뽕연구소

일정 (당일)

- DAY 01
- 출발
 - 오디 잼 만들기 & 오디 비누 만들기
 - 중식
 - 부안 참뽕연구소 견학
 - 부안 양잠농업 탐방 및 양잠농업을 활용한 6차산업 현황 정취
 - 내소사 견학
 - 도착

상기 일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일형 탐방상품

조상의 지혜가 담긴 농업기술과 문화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화산지역인 의성은 연강수량이 약 972ml 안팎으로 물 빠짐이 심한 최소 우(雨)지역으로 논농사나 이모작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삼한시대 고대국가인 조문국 시대부터 2,00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지식과 역사, 농업문화가 담겨있는 의성제언(堤堰) 농업시스템은 국가중요농업유산입니다.

보전 가치

- 전통제언(堤堰)축조 기술을 활용한 물 저장관리시스템
- 삼한시대부터 2,000여 년간 내려온 전통농업기술과 역사, 농업문화
- 물을 가두는 방식에 따른 산곡형 제언(발원수원)과 평지형 제언(강우의존)
- 마늘농사와 논농사 이모작을 위한 제언 수전 전환시스템 (수운조절 기능)
- 의성지역 전통 제언의 축조 기술 (심통파기, 심통다지기, 물매래작업, 수통설치, 심통쌓기, 파도석쌓기)

불리한 환경을 극복한 지혜



영남지역에 위치하고있는 의성은 화산지역으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지역 주민들이 독을 쌓고 관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모작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의성지역에는 삼한시대부터 1,500여개의 제언 (堤堰)이 축조 되었으며,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리계를 통한 관리와 못 도감 제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수리 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하천에 독(장애물)을 쌓아 만든 보(淤), 천방(川防)등과 같은 인공적으로 만든 제언 축조기술로 수전면적을 넓혀 농업으로 주민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통제언을 활용한 수전농업기술의 발달

의성군은 전통제언축조 기술을 활용하여 물 저장관리를 통한 벼농사로 식량을 확보하였고, 마늘농사로 소득을 창출하여 주민생계를 유지했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의성 제언의 특징은 한정된 물의 저장과 관리를 위하여 물 흐름과 지형에 따라 제언지를 선정



하였는데, 발원한 수원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가두는 산곡형 제언과 강우에 의존하는 높은 지대의 유역권에서 인위적인 도랑을 연결하여 용수를 채우는 평지형 제언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제언은 못종을 통해 정교하게 수량을 조절하고 물의 수온을 조절하여 냉패 피해를 방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혜를 발휘하였고, 가을철 추수 후 마늘을 파종하고 다음해 6월 마늘을 수확한 후 논농사를 짓는 수전 전환시스템을 통해 이모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브랜드 가치 향상

의성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농업활동을 위해 제언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치수사업을 통해 보수되어 군에서 총 642 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유지하는 제언이 아닌 경우는 물리자들끼리 비용을 지불하여 자체적으로 범 치수사업을 실시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에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재평가하고 금성산 일대의 문화적 자원을 지역 브랜드화로 인식시키기 위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제언 농업 시스템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와 음식, 생활문화 등 우수자원을 6차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소득향상과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논과 제언에서 자생하는 생물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전통수리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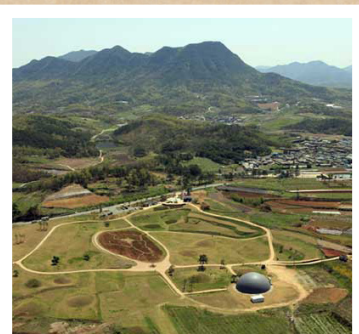
금액 1인(성인, 소인 동일)
33,000원~



집결지	서울 서대문역 농협중앙회 또는 지정장소
출발인원	40명(최소 출발인원 30명)



조문국 박물관



금성산 고분

일정 (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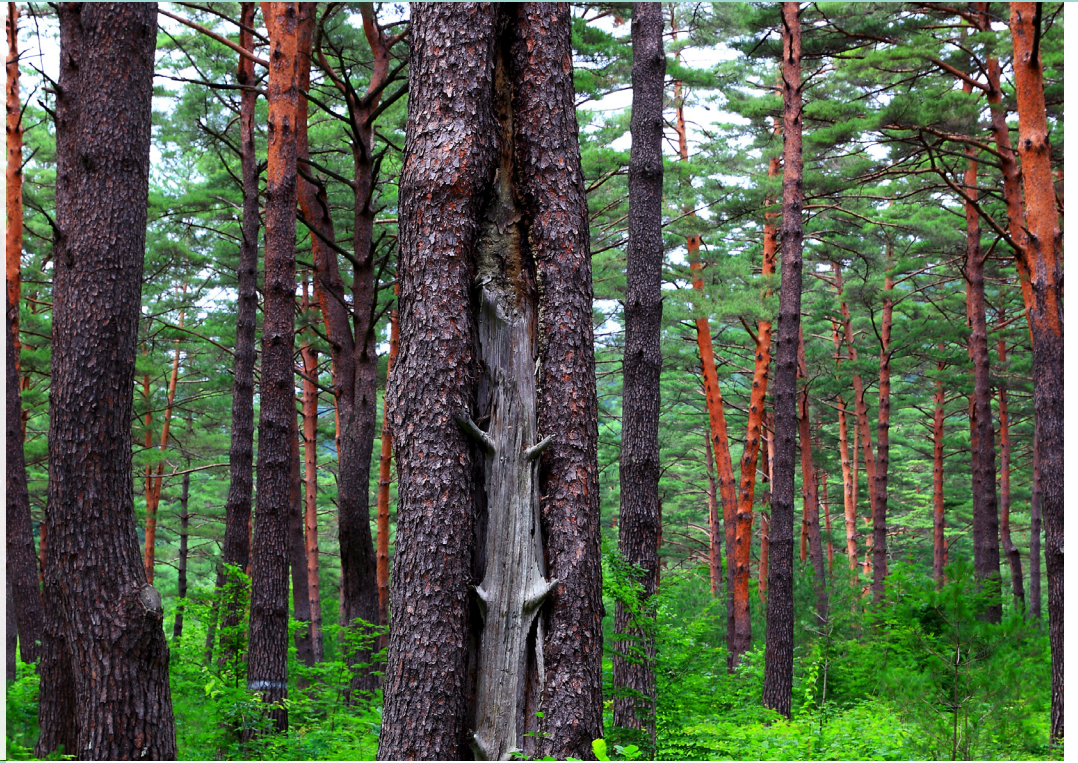
- DAY 01
- 출발
 - 6차산업 인증 애플리즈 방문 -나만의 와인 만들기 체험
 - 중식
 - 조문국박물관 견학
 - 금성산 고분군 견학
 - 전통수리농업시스템 탐방
 - 도착

상기 일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박2일형 탐방상품

솔향기 피어나고 살림살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생태관광의 보고(寶庫)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경북 울진의 1,284만 그루 금강송 군락은 백두대간에서 뺨은 낙동정맥 해발 600m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깊은 산중에서도 물이 끊이지 않고, 가뭄에도 알맞은 비가 내리는 최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금강송을 이용해 수준 높은 음식문화와 건축물, 예술품을 발전시켰고, 소나무숲길을 훼손하지 않는 생태관광으로 금강송의 보존과 가치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전 가치

- 유전적 형질과 품질이 우수한 한민족의 나무, 금강송에 대한 가치제고
- 자연적, 인위적 위협으로부터 금강송을 보전하는 체계적인 모델제시
- 화전민들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금강송 군락의 역사적 가치 숙고
- 수달, 담비, 삿, 산양 등의 서식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 군락지 주변 삼림문화와 십이령옛길의 역사 보전

자급자족을 위한 산지농업시스템

금강송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은 화전을 일구어 배추, 옥수수 등을 경작하고 있다. 개울과 인접한 골짜기 주변을 주거지로 잡은 이들에게 금강송 군락지는 안락하고 넘실한 울타리가 돼주었고, 그 속에서 채집과 수렵으로 먹을 거리를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금강송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 생솔가지를 끼운 금줄을 쳐서 아이의 탄생을 알리고, 소나무에서 송기, 송화가루, 송이 등의 먹거리를 얻으며 솔가지, 마른 솔잎을 태워 지은 밤을 먹고, 소나무 그늘 속에 살다가 소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솔밭에 묻혔으며, 무덤가에도 소나무를 심어 저승의 삶을 굿어보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곳. 귀한 줄만 알았던 금강송은 평범하고 소박한 이 곳 사람들의 삶까지도 넉넉히 품어주는 큰 나무였습니다.



솔향기 풍기는 축제의 마을

동해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금강 소나무숲, 그 숲이 잉태한 또 하나의 보물이 금강송이입니다. 매년 10월경에 시작 되는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는 숲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고, 마시고, 먹어보는 전국규모의 대표축제가 되었으며, 더불어 솔잎, 송화다식, 도토리, 산나물 등의 산촌 음식 역시 새로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북 울진
금강송산지농업

금액 1인(성인, 소인 동일)
10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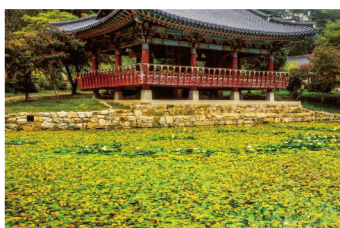
집결지	서울 서대문역 농협중앙회 또는 지정장소
출발인원	40명(최소 출발인원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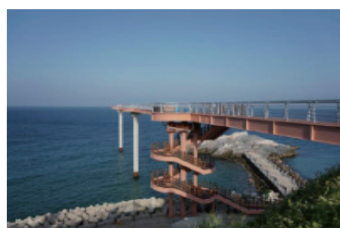
구수곡 자연휴양림



금강송 에코리움 힐링체험



불영사 관람



등기산 스카이워크

일정 (1박2일)

- DAY 01**
- 출발
 - 중식
 -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현황 청취 (구수곡 자연휴양림 산책)
 - 6차산업 인증 금강송 에코리움 방문 (힐링체험)
 - 석식
 - 숙박 : 에코리움(4인실)
- DAY 02**
- 조식
 - 불영사 및 불영계곡 관람
 -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광
 - 중식
 - 도착

상기 일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박2일형 탐방상품

1200년 한국 차문화의 종가

하동 전통 차농업

전통농업과 주민협업문화를 간직한

구례 산수유농업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담양 대나무 밭



경상남도 최서단에 위치한 하동군 화개면은 지리산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과 함께 1,200여년간 가내수공업 형태로 전통방식의 차 재배 및 가공 기술을 전승해 온 한국 차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부족한 경작지 탓에 산비탈의 바위와 돌틈에 조성한 야생차 밭에서 최상의 전통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한국기록원과 한국 차학회는 화개면을 한반도 차 시배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보전 가치

■ 하동

-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성, 유지되어온 차밭의 역사성
- 바위와 돌 틈의 산지에 조성돼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로운 농업경관 형성

■ 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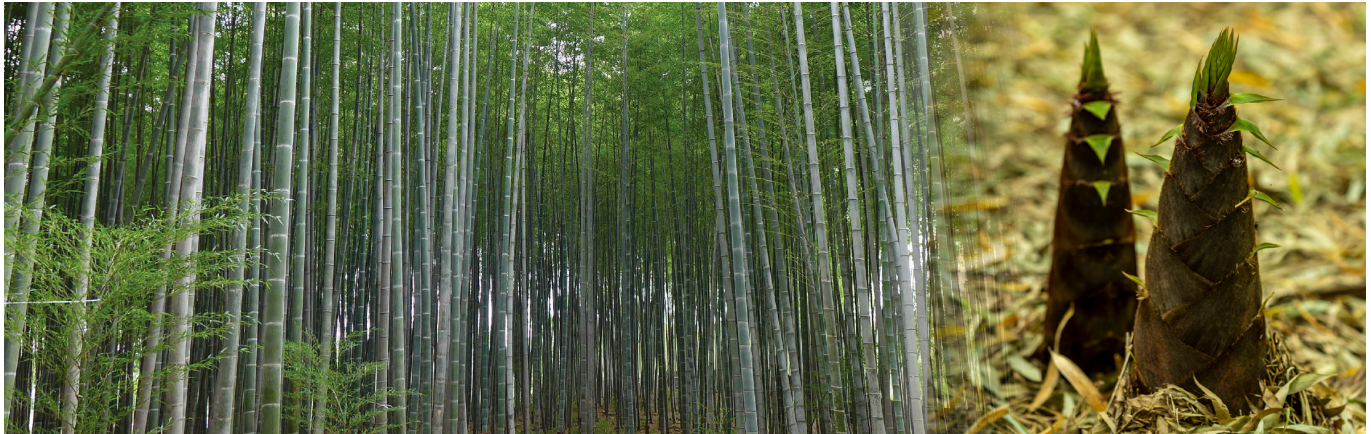
- 경작지 부족이라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 생계유지 수단
- 지리산권 기후와 지형을 이용해 조성한 지역 고유의 농업활동의 산물

■ 담양

- 기후변화 대처에 유용한 수종으로서 대나무에 대한 관심 촉구
- 값싸고 성장이 빨라 농촌소득 증대와 탄소 감축에 기여




전남 구례의 산수유 농업은 경작지 부족이라는 불리한 환경에서 마을 어귀, 계곡, 산등성이 등에 산수유 재배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탄생한 이 지역 특유의 농업활동의 산물입니다. 수령 100년 이상의 산수유 1천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어 사시사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산수유 열매 수확 및 씨 제거 과정에서 형성된 전통농법과 다양한 농경문화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은 연평균 기온이 12.5℃, 연간 강수량이 1,300mm 안팎인 고온다우(多雨) 지역입니다.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 방풍이 잘되고 영산강 상류가 임야를 가로질러 토지가 비옥한 대나무 재배의 최적지입니다. 대나무는 특유의 탄력성으로 인해 각종 농기구를 비롯한 농업 생산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생활용품과 공예품 수요도 늘면서 꾸준히 재배되고 있습니다.

경북 하동, 전남 구례, 담양
전통 차, 산수유, 대나무

금액 1인(성인, 소인 동일) **115,000원~** **교과당** 

집결지	서울 서대문역 농협중앙회 또는 지정장소
출발인원	40명(최소 출발인원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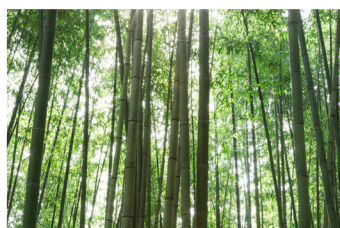
산수유 농가



남원 광한루



하동 전통차 농업 탐방



대나무밭 탐방

일정 (1박2일)

- DAY 01**
- 출발
 - 의신 베이빌리지 마을
 - 중식
 - 하동 전통차농업 탐방
- 야생차 박물관
- 차밭 및 지리산 반달가슴곰 생태체험
 - 구례 산수유농업 탐방
- 꽃담길, 꽃길코스
 - 석식
 - 숙박 : 콘도(4인실)
- DAY 02**
- 조식
 - 남원 광한루 견학
 - 담양 대나무밭 탐방 및 죽녹원 견학
 - 중식
 - 메타세콰이어길 산책
 - 도착

상기 일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박2일형 탐방상품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온돌과 농업 관개수리기술의 만남

청산도 구들장 논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발효차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전남 보성군은 국토의 서남단, 전남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상 및 토양, 입지 조건이 차 생육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보성의 계단식 전통차밭은 과거 농경지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극복한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려한 차밭의 경관을 활용한 상품과 체험·관광 다원이 조성되어 차 산업의 6차산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전 가치

■ 보성

- 보성녹차 브랜드 가치로 수출기반 조성
- 계단식 경사면의 토방유실 방지 및 수자원 관리기능

■ 장흥

- 국내유일의 전통 제다법과 음다법을 유지 계승
- 산림자원과 공생하는 차 농업 생태계 형성과 유지

■ 청산도

- 돌을 쌓아 계단식 논을 조성, 토지의 가용면적을 극대화한 농업 산물
- 일반 계단식 논과 형태는 비슷해 보이나 차별화된 관개 시스템 보유



청태전(靑苔錢)이라는 명칭은 전남 장흥지방에서 만들어진 지방 고유의 토속어이자 비유어로 발효차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국내유일의 전통 제다법과 음다법을 유지계승하고 있습니다. 청태전은 구멍 뚫린 동전 모양으로 빚어 발효시킨 전통차로 구수한 맛과 특유의 깊은 향으로 유명합니다. 장흥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다업체의 노력으로 전통 제조방법을 체계화했으며, 이후 상품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청산도는 전남 완도군에 속한 섬으로, 경사가 심한 지형과 물 빠짐이 심한 사질토양이 많아 계단식 논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들장 논이 발달한 곳입니다. 구들장 논은 벼 재배에 필요한 흙과 물이 부족한 환경을 한반도의 전통 온돌문화를 적용해서 극복한 독특한 관개 구조물로서, 자갈층에 통수로를 만들고 그 위에 구들장과 진흙 및 토양을 차례대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전남 보성, 장흥, 완도
 전통차, 발효차, 논

금액 1인(성인, 소인 동일)

168,000원~



집결지	김포공항
출발인원	40명(최소 출발인원 30명)



발효차 체험



장흥 발효차



완도 구들장 논



한국 차 박물관

대한항공 이용
 일정(1박2일)

- DAY 01**
- 김포공항 → 여수공항
 - 대한다원 견학 및 중식
 - 한국 차 박물관
-보성녹차발 현황 청취
-녹차만들기 체험
 - 장보고 기념관, 완도타워 견학
 - 석식
 - 숙박 : 펜션(4인실)
- DAY 02**
- 조식
 - 청산도 구들장 논 현황 청취 및 주변 관광지 견학
 - 중식
 -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현황 청취
-보림사 티로드 산책
 - 여수공항 → 김포공항

상기 일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박2일형 탐방상품

화산섬에서 피어난 농경문화의 꽃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한국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지형적 특성 탓에 농업환경이 매우 척박하고 불리합니다. 때문에 섬사람들은 토양에서 골라낸 돌을 이용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을 막는 기재로 활용했고, 더불어 생물종의 다양성과 특유의 농업문화를 보존해 왔습니다. 섬 전역에 분포된 밭담의 길이는 무려 22,000km로 제주의 밭담 농업시스템은 빼어난 경관과 더불어 제주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유산입니다.

야속한 자연에 맞선 밭담

제주도는 땅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뒤덮여 있어 농경지 개간을 위해 돌을 캐야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표토층의 토질은 매우 가볍고, 비바람에도 쉽게 돌이 드러나기에 계속해서 돌을 치워야 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 농민들은 강한 바람을 이기고 화산회토를 관리하기 위해 캐낸 돌을 이용해 밭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만리장성의 3배에 달하는 길이

밭담은 1천년여의 세월을 거치면서 '흑룡만리'(黑龍萬里)를 이루었습니다. '흑룡만리'는 검은색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밭담이 장장 22,000km 이상 이어진 장관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길이가 6,300여km에 달하는 중국 만리장성의 3배에 달합니다.



보전 가치

- 열악한 제주의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지켜온 버팀목
- 농업적 가치 외에 제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빼어난 문화경관
- 제주 중산간지대 난개발 억제에 기여 (생물다양성 보전 역할)
- 제주 미래관광의 핵심 코드로 기능 (문화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의 주요 테마로 주목)

비바람 막아주는 현무암의 힘

발담은 제주도 전통 농업시스템의 중요한 축입니다. 제주의 바람은 토양의 수분증발을 활발하게 하는 탓에 씨앗의 발아를 어렵게 만들고, 작물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여름의 집중호우는 토양유실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바로 발담입니다. 발담은 기공이 많고 비교적 등근 현무암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도 잘 견뎌냅니다.

보전, 관리, 활용의 비전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은 2014년 4월 FAO 지정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제주 발담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단기사업으로는 발담 복원·정비, 탐방코스 및 체험 테마공원 조성, 제주발담축제 진행, 발담 장인 발굴·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는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 관리사업단 구성·운영, 친환경 농업 확대, 제주 발담 세계중요 농업유산 교육관 건립, 제주 발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 발담의 기능

강한 바람을 걸러내는 파풍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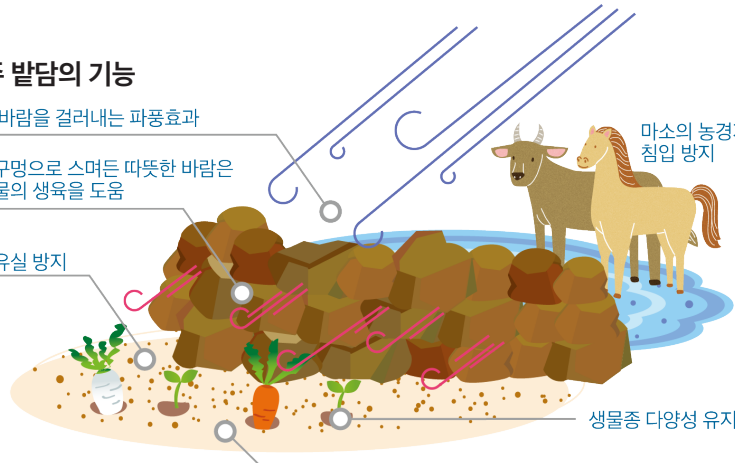
바람구멍으로 스며든 따뜻한 바람은 농작물의 생육을 도움

토양유실 방지

마소의 농경지 침입 방지

생물종 다양성 유지

농경지의 작은 돌들은 토양을 따뜻하게 하며 수분 보존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

금액 1인(성인, 소인 동일)
개별문의

농업
교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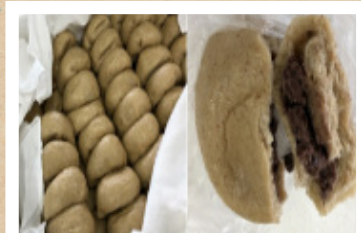
집결지	김포공항
출발인원	40명(최소 출발인원 30명)



감즙염색



발담



보리빵 만들기



아함곶팜스테이마을

항공 이용 일정(1박2일)

- DAY 01**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 탐방 - 녹차만들기 체험
 - 낙천리 아홉굿 팜스테이 마을 방문 - 감즙염색, 보리빵 만들기 체험
 - 꽃자왈 체험 또는 오름 체험
 - 석식
 - 숙박 : 콘도(4인실)
- DAY 02**
- 조식
 - 제주 도내관광 - 더마파크, 사려니숲길 산책, 성산일출봉...
 - 제주공항 → 김포공항

상기 일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박2일형 탐방상품

녹색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시스템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시스템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진 고립된 화산섬의 척박한 급경사지 지형에서 자연에 적응하며 만들어낸 지역 주민들의 지혜로운 전통 생활방식과 문화가 담겨있는 농업시스템입니다. 산림과 공존하는 조각형태로 경작지를 조성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울릉도 주민의 독특한 주거와 생활환경 및 음식문화 등이 밭 농업시스템과 잘 어우러져 보전 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입니다.

보전 가치

- 자연에 적응하며 만들어낸 지역 주민들의 전통지식과 문화가 담겨있는 농업시스템
-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울릉도만의 밭 농업체계가 형성되고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진화
- 자생식물과 고유종을 이어감으로써 울릉도의 원시자연을 보존하는 역할에 기여
- 순환농업을 통해 생태계와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음식관광을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화산섬인 울릉도는 서늘한 날씨와 적설량이 많은 기후적 특징과 평지가 거의 없는 급경사지로 표토가 얇아 배수성이 높은 토양으로 수분관리가 힘든 환경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자연과 공생하기 위하여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지 않고, 연속되거나 집약되지 않은 패치 형태의 농경지를 형성하고 개간하였습니다. 또한 육지와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고립된 섬의 여건 때문에 축분과 퇴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토양의 양분을 제공하는 자체순환이 가능한 농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순환농법

울릉도 주민은 급경사지에서 섬 특유의 기후조건에 가장 적합한 작물인 산채를 섬 자체 순환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채는 고지대에서 자생하던 식물로 과거 주민들의 먹을거리로, 현재 주민들의 소득 작물로 자생식물의 보존과 주민들의 생계유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둑을 만들어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억새와 수목을 심었으며, 현재는 도로와 주거지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단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순환농법은 토양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양이용 및 관리시스템과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기법이 특징입니다.

주민들의 지혜가 더해진 독특한 농업경관

바다와 산림, 밭 농업의 조화로운 모습이 연출되는 울릉도만의 독특한 농업경관과 화산폭발 후 분화구가 함몰되어 만들어진 칼데라지형에 농경지를 개간하여 밭 농업을 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지보다 토양의 토심은 얇지만 산림과 바다에서 공급되는 유기물이 토양에 많고, 기후적인 요인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육지의 농업과는 다른 울릉도만의 밭 농업으로 발달하게 만든 자연의 큰 선물이 된 셈입니다.

생태관광과 컬리너리투어(음식관광)의 연계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 섬 울릉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도의 전진기지라는 의미와 더불어 관광 휴양 섬으로서 지역특산자원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의 산채농업은 가공 및 포장 기술의 발달로 6차 산업을 추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지질자원과 밭 농업을 통한 산채와 호랑약소, 다양한 음식자원을 활용한 적합한 아이티업 생태관광과 컬리너리투어(음식관광)의 연계로 새로운 트렌드의 관광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
화산섬 밭 농업**

금액 1인(성인, 소인 동일)
개별문의

농업
교포상



집결지	서울 서대문역 농협중앙회 또는 지정장소
출발인원	40명(최소 출발인원 30명)



화산섬 밭 농업시스템



나리분지



신경수길 트래킹



울릉도 음식문화

일정 (1박2일)

DAY 01

- 출발
- 강릉 안목항 → 울릉도
- 울릉 화산섬 밭 농업시스템 탐방
- 오감 만족 울릉 체험 프로그램 참가
- 신경수길트래킹, 섬유향수 만들기, 족욕체험, 엽서쓰기, 섬백리향차 시음
- 석식
- 숙박 : 콘도(4인실)

DAY 02

- 조식
- 울릉도 일주 관광 - 봉래폭포, 나리분지, 내수전망대 등
- 중식
- 울릉도 → 강릉 안목항
- 도착

상기 일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전통, 문화...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조들의 삶이 담긴 지혜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으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읍시다.

 **농협네트웍스(NH여행)**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NH농협생명빌딩 서관 9~10층

신 청 문 의
농업
교과서

www.nhtour.co.kr
☎1899-0582